

이기는 삶

기본에 충실하자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 중용 23장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나를 바꾸고 나아가 세상을 바꾼다. 나 하나 바꾸기도 힘든데 어떻게 세상을 바꾸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내가 바뀌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내 주변 누군가의 변화로 인하여 나도 변하며, 그것이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 변화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은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디딤돌이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처방전이다. 그러므로 여러

움에 부딪히면 기본으로 돌아가 조심으로 다시 일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든 잘 해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이란,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을 말한다.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을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한다. 먼저 건강한 신체를 갖추려면 규칙적인 식사와 함께 꾸준한 운동이 필수 조건일 것이다. 물론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고, 지나친 음주와 흡연은 삼가며,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건강한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바른생활 책에 잘 나와 있다. 바른생활 책에서 소개하는 사람들의 기본 정신과 행동거지를 본받아 그들의 삶을 따라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품이 바르고 예의범절을 갖춘 사람을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한 사람은 항상 나의 무심한 행동 하나가 타인에게 방해가 될까 조

심하며, 상대를 배려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타적인 삶이야말로 인간관계를 잘 형성해 가는 최고의 방법이며 바로 기본에 충실한 삶인 것이다.

기본에 충실하자. 웃은 깨끗한 옷을 입고, 내의는 매일 갈아입고, 머리는 항상 단정하게 하고, 매일 샤워하여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자. 문을 여닫을 때는 문고리를 잡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열고 닫는다. 공용물건을 사용할 때는 사용한 후에 반드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복도를 지날 때에는 정숙보행(靜肅步行)을 해야 하며, 특히 슬리퍼는 바닥을 끄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슬리퍼가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나올 때 돌아서서 벗어두어 들어가는 사람이 신기하게 한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뒷사람에게는 존칭어를 사용한다.



아는 사람을 만나면 반가운 얼굴로 정중하게 허리 굽혀 인사하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소리 내어 말하자. 그냥 마음으로 반가워하지 말고,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웃은 얼굴로 반갑게 인사하자. 상대방이야 어떻든 내가 먼저 인사하자. 이러한 것들이 기본에 충실한 생활이다. 이제는 누구나 인정하는 소중한 가치들에 관심을 기울이자. 진정한 성공을 꿈꾼다면 먼저 기본에 충실하자.*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A life of trust in God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

개는 개 생각을 하고 개소리를 내며 소는 소 생각을 하고 소의 소리를 낸다.
▶ The dog cannot but think the dog's thought and make the dog's voice. The cow also too.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더라도 자기의 주체 영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 Therefore, no matter how a good sermon you hear, you cannot understand the Word of God without abandoning your own subjective spirit, or your ego. You can not understand at all.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 Thus, if you leave your fate entirely to God, the God will give the spirit of God.

그 후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너무나 오묘하여 자신도 모르게 감탄이 나온다. 그 말씀에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음성 속에도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 After that, when you listen to the Word, the Word is so profound and mysterious that you admire it without your knowledge. It is meaningful not only in the word but also in the voice.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벌써 음성 속에서 깊은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 영을 지닌 자는 제아무리 들어보려고 해도 들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온전히 맡기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써야 하는 것이다.

▶ Those who have received the Spirit of God are already aware of the deep meaning in the voice. Therefore, those who have the devil spirit cannot listen even if they try to liste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ert yourself for entrusting the whole thing.*

by Alice

창조론과 진화론의 한계

이 세상은 맨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또 인간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것은 누구나 한번쯤은 궁금해했던 문제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 호기심이나 교양을 넘어서 무척 현실적인 문제이다. 왜냐하면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듯 현재의 인류 상황은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세계의 기원과 간접적으로 인과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즉 세계의 기원이라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인류 상황이라고 하는 결과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인이 풀리면 결과도 풀리는 법이다. 세계가 시작된 원인이 풀린다면 이는 현재의 세계를 푸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세계의 기원이라는 문제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있는 현재의 인류 상황을 풀기 위한 매우 현실적인 주제로서 새롭고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태까지 단 한번도 확연하게 풀리지 않은 복잡하고 난해한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시각으로 간명하게 논구(論究)될 것이며, 그러면서도 그 어떤 기원론보다도 폭넓고 깊이있는 결론이 제시될 것이다.

세계와 인류의 기원에 대한 전통적 입장은 서양에서 확립된 진화론과 창조론으로 대표된다. 과연 인간은 적자생존(適者生存)의 법칙에 따라 원숭이로부터 진화해 나온 것일까. 아니면 신에 의해 진흥으로 만들어진 것일까. 이 두 학설은 인간의 기원에 대해 그동안 제각기 많은 의미와 단서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이들이 지닌 상당한 설득력과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어느쪽도 인간의 기원에 대한 실제 그대로의 정답(正答)이라고 보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다. 이러한 판단은 다음의 두가지에 근거한다.

첫째, 두 학설이 상반되어 있다는 것은 둘 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들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정말 온전한 정답이라면 상대쪽의 대립된 주장을 수용하여 세계의 기원에 대해 보다 더 통일적인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는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배워야 하고 교회에 가서는 흠으로 만들어졌다고 믿어야 하는 현실은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창조론이 전하는 인간의 기원(미켈란젤로 작). 이 그림은 인간이 흠으로 만들어진 미물이 아니라 신이라는 존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이들이 세계의 기원에 대한 실제 그대로의 해답이라면 앞에서 말한 대로 원인이 풀렸으니 결과도 풀려야 한다. 즉 이들 학설에 의해 현재의 인류 상황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인류의 고통과 어려움, 난관과 문제들의 원인을 밝혀주고, 나아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두 학설이 등장하기 전이나 등장한 후나 인류의 사정은 변함이 없다.

이렇듯 상호 모순과 한계를 지닌 두 학설이 현대인에게 별 혼란 없이 세계의 기원에 대한 정설로 제각기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창조론은 현대인에게 정신적 상징적 의미에 국한되어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며, 진화론은 물리적 현실적 의미에 국한되어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두 학설이 점유하고 있는 기반이 조금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정신과 물질, 상징과 현실이 분리되어진다면 사람들은 이 두 상반된 학설과 함께 그런 대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앞서 거론된 대로 현재의 인류상황의 중대한 실마리인 세계의 기원이라는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게 될 것이다.

이제 정신적 의미로서 갖는 창조론의 의미와 한계, 현실적 의미로서 갖는 진화론의 의미와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함으로써, 양자의 교훈을 통합하고 양자의 한계를 넘어서 우주 생성론의 정답을 찾으려 한다.

창조론

사람이 진흥으로 만들어졌다는 성서 기록을 끈기있게 믿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성서는 신성한 책이라 일찍이 신뢰도 더하거나 빠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이점은 예외가 아니다. 이것은 신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앓나를 떠나 먼저 인간의 건전한 사고 형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왜냐하면 사람을 실제로 진흥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생명을 단순하게 보는 사고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사고를 지닌 사람이 한두 명씩 늘어났다면 사회에는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은연중 자라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진흥으로 만들었다는 성서 기록이 진정한 신의 계시라면 그것은 사람을 실제로 진흥으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닐 것이다. 진흥이란 무정형의 상태이다. 무수한 모양으로 변형이 가능하다. 즉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일 것이다.

창조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선악과'도 마찬가지로 정신적이고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로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인간의 조상이 그런 물질적인 사과나 배를 따먹어 이 거대하고 복잡한 세계가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동화를 좋아하는 유치원생에게나 먹혀들 이야기이다. 더구나 인간의 조상이 따먹었다는 그 선악과의 맛을 현재의 인간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전혀 기억하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것으로 인해 현재의 인간의 삶이 지배되고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

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인간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이처럼 세계의 기원에 대해 동화같이 단순하고 순진한 믿음으로 접근하려는 사람이 한두 명씩 늘어났다면 사회에는 단순하고 순진한 사고가 은연중 번져갈 것이다.

인간의 조상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지금의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성서 기록이 진정한 신의 계시라면 그것은 지금과 같은 세계가 빚어지게 된 '요인'이 인간의 정신 속에도 들어있다는 신의 암시이자 교훈일 것이다.

창조론은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을 일으킬 주제들과 얽혀 있어 여기서는 더 깊게 들어가지 않고, 뒤로 가서 과학의 제 이론과 연결하여 보다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의미를 부각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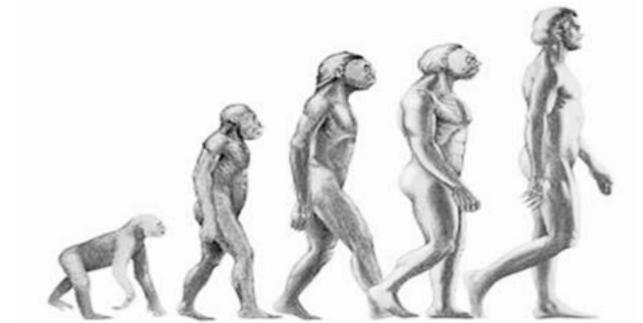
진화론

세계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 확고한 물증으로 창조론을 반박하며 강력하게 대두하고 있는 이론이 진화론이다. 진화론은 직관과 추상을 거부하고 아주 사소하고 단편적이지만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물증만을 재료 삼아 세계의 기원에 대해 통일적인 이론을 조립하는 데 성공하였다. 진화론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들의 기원과 발전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냈고, 약육강식의 무질서한 현실 세계를 적자생존(適者生存)이라는 법칙으로 질서지워 주었다. 또한 각 시대 나타났다가 사라져갔거나 혹은 동시대를 살아간 다양한 생물군들 사이에 연관성을 찾아냄으로써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넓혀 주었고 환경에 대한 인간의 관심을 높여 주었다.

진화론에 따르면, 초기의 지구에는 현재와 같은 산소도 없었고 아무런 생명체도 없었다고 가정되고 있다. 우주를 떠돌던 대량의 입자들이 한곳에 뭉쳐지면서 고온의 마그마로 된 물렁물렁한 지구가 탄생하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냉각되어 마그마는 육지가 되고 다습한 대기가 비가 되어 바다를 형성했다고 가정된다. 또다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바다 속에 있는 무기물질들은 적당한 온도의 태양 에너지를 받아 유기체를 형성하고 이 유기체들이 결합하여 단세포생물로 발

전하고 단세포생물은 다시 다세포생물로 발전하여 현재 물고기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한다.

지구의 환경이 점점 생명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면서 물고기들은 다양한 형태로 무수히 번식했을 것이며 이들 중 일부가 육지로 상륙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들은 육지 환경에 적응하면서 앞다리와 뒷다리가 생기고, 아가미호흡을 하는 양서류(개구리, 도롱뇽 등)로 진화하였다고 한다. 육지로 진출한 많은 양서류 중의 일부가 다시



원숭이가 발달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진화론의 주장 또한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내륙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앞다리와 뒷다리가 더욱 발달하고 폐호흡을 하는 파충류로 진화하였고 다시 이들 중 일부가 포유류로 발전하고 포유류 중 일부가 두뇌용적이 커지고 꼬리가 퇴화되면서 원숭이, 고릴라 등의 영장류로 진화하여, 이들 영장류의 일부가 현재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설은 각 지층에서 발견되고 있는 여러 동물 화석의 연대(年代)와 일치하고 있고, 여류와 양서류의 유사점, 양서류와 파충류의 유사점, 파충류와 포유류의 유사점, 영장류인 원숭이와 사람의 유사점 등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 생물들이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신체의 일부가 진화 내지 퇴화하는 구체적인 흔적을 보여주고 있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진화론은 이처럼 강력한 설득력을 지닌 반면 또 그만큼의 맹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진화론의 가설이 정말 사실이라면 왜 바다에 살던 물고기들이 육지로 진출하였을까. 무엇이 그 수많은 물고기 중의 일부를 물로 나오게

했을까. 물로 나올 땐 이유가 있어서 나오는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괜히 나온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유일한 답은 바다속보다는 육상의 생활 환경이 더 좋았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생물이다. 그들에게 바다보다도 더 좋은 생활환경은 있을 수 없다. 당장 살기에 좋은 터전을 버리고 어떤 목적이식을 갖고 육지로 올라올 물고기들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더구나 바닷물고기는 육지는 고사하고 민

물에만 들어와도 살 수가 없다. 그런 물고기들이 육상에 진출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뿐더러, 있었다 해도 그것은 수많은 물고기들의 육지를 향한 도전과 그에 따른 죽음을 뜻한다. 과연 그런 수많은 희생을 무릅쓸 물고기들이 있을 수 있을까.

또한 그때 그러한 진화가 일어났다면 지금도 그 진화는 일어나야 한다. 옛날에는 일어났는데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면 논리에 어긋난다. 현재 바다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은 육상으로 진출하려는 일말의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폐수로 인해 그들의 환경이 오염되어도, 먹이가 부족해도, 그들 나름의 먹이사슬을 이루면서 육지 같은 것은 꿈도 꾸지 않고 물속을 만족스럽게 헤엄쳐 다니고 있다. 현재의 물고기에게서 육지로 나오려는 조짐을 전혀 발견할 수 없으므로 물고기야 양서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없다.*

- 도서출판 해인각, 「인류의 종말을 두고 벌여온 신들의 전쟁」에서 발췌